

# 흘러간 출판, 닥쳐올 출판

권영빈

중앙일보 논설위원

지나간 세월은 이름답고 흘러간 추억은 곱게 간직되게 마련인가. 전란(戰亂)의 폐허 속에서 어렵사리 구해 읽었던 잡지 《새벗》, 마해송의 《떡배담배》, 월탄의 《삼국지》는 소년시절의 놀이도 구였고 상상력의 보고였으며 글읽기의 시작이었다. 고바우의 연재만화 <꼭꾸리군 장다리군>은 당시 시골소년들에게 있어 하나의 거대한 문화충격이었다. 서울 학생들의 생활을 시골 학생들에게 알려주는 생활정보였고, 그림으로도 뭔가를 전달할 수 있다는 비디오 세계에 대한 첫 충격이기도 했다.

이뿐인가, 청소년기의 밤잠을 설치게 했던 김내성의 《쌍무지개 뜨는 언덕》에서부터 그의 《마인》《에인》 시리즈는 소설의 재미가 무엇인지 눈뜨게 했다. 50년대말 경쟁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정음사 동아출판사의 세계문학전집은 청소년들에게 있어 세계화 교육의 시작이고, 출판도 경쟁을 한다는 사실을 보여준 첫 기억이었다. 이런 추억 때문인지 출판 1세대에 속할 정음사 유훈문화사 동아출판사 민중서관 등은 단순한 출판사가 아닌 거대한 정보산업체였고 지식산업의 견인차였다고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출판통계로만 본다면 해방후 10년간 출판 발행종수는 한해에 1천권을 넘지 못했고 출판사도 3백여 곳밖에 되지 않는다. 비록 종수는 적었다 하더라도 이들 책은 지금의 40대 이후 연령층에는 고르게 충격과 영향을 안겨주었다. 50, 60년대에 있어 출판은 오늘의 TV와 컴퓨터 기능을 종합한 놀이의 도구였고 지식의 창구였으며 정보의 통로였다. 독서와 지식은 전란과 굶주림을 극복하는 출세의 도구였고 허기진 지식욕을 채워주는 삶의 양식이며 독서를 통한 지적 체험의 공유화 시기였다.

70년대를 넘어서면서 출판의 수요와 공급은 엄청나게 커진다. 50년대까지 발행부수 5백만부를 넘지 못하던 것이 70년대 중반에는 3천7백만부로 급증하고 출판사도 1천6백여곳으로 늘어난다. 70년대와 80년대 중반은 정치적으로는 군사집계의 암울한 시기였고 지식인으로서 가장 견디기 어려웠던 고난의 한 시대였으며 고도성장의 상승세를 탄 대중문화의 출발기이기도 했다.

2세대 출판이라 할 이 시기 출판은 1세대와는 달리 두개의 흐름으로 나타났다. 1세대 출판이 폐허의 땅에서 굶주린 지식을 제공하는 역할을 맡았다면, 2세대 출판은 대중문화 수요에 대한 공급처로서 또 하나는 반군사문화 반체제적 성격을 띠면서 상승작용하는 출판의 황금기였다. 실제로 군사정권의 압제에 밀려 직장을 잃은 언론인들이 생계 수단으로 출판업을 시작했고, 이들은 나름대로 독자적인 성격을 지니면서 출판의 영역을 확대해 나갔다. 많은 책들이 군사정권의 희생물이 되고 필자 또한 출판물 때문에 술한 옥살이를 했다. 출판은 지식과 정보의 전달자로서만이 아니라 압제에 항거하는 지식인의 항변이었고, 문화충을 두텁게 하는 대중문화 파급의 선봉이기도 했다.

그러나 90년대에 들어오면서 이른바 출판 3세대가 출판의 흐름을 주도하면서 기이한 현상이 생겨났다. 익명의 저자가 쓴 신비주의 책과 무명의 소설이 판치며 막대한 광고로 밀어붙이기 출판이 어느 정도 성공하는가 싶더니 최근 돌아가는 사정을 보노라면 이마저 갈 길을 잃은 모양이다. 목적 없는 출판, 한탕주의 출판이 만들어낸 자업자득의 파멸을 보는 안타까움을 느낀다. 다매체 다채널 시대에 지식과 정보의 공급처가 책 아닌 컴퓨터로 바뀌었다고 시대만 한탄할 것인가. 모든 책임을 컴퓨터와 TV에 돌리고 출판인들은 한숨만 쉬며 옛날의 금잔디만 회고할 수 없다. 시대가 변하면 출판도 변하고 책의 모습도 바뀔 것이다. 출판 50년을 맞는 시점에서 새 모습 새 출판의 새로운 출발을 기대하는 마음 간절하다.

## 특집/광복 50년, 출판 50년

### 2 “내가 생각하는 광복 50년의 의미”

노양환/배효선/정해상/고정일/조근태/임인규/  
박맹호/윤형두/이기웅/김신혁/김종수/이성범/  
나춘호/김성재/김언호/윤창광/한만년/허창성

### 8 광복 50년 분야별 학계의 수확

국어학/국문학/한문학/민속학/철학/국사학/경제학/  
사회학/법학/자연과학/한국음악학

### 14 베스트셀러로 본 출판 반세기 -이중환

### 18 통계로 읽는 출판계 변천사

### 신간읽기 20 청산되지 않은 역사의 실천적 이론 -김영호

다카키 겐이치의 《전후보상의 논리》

### 책 뒤에 선 사람들 21 32년째 ‘인쇄’ 외길 걷는 평화당 조효준 실장

서평 22 유종호 《시란 무엇인가》 - 이광호

계명대 철학연구소 《인간과 자연》 - 김수중

23 르네 톰 《카타스트로프의 과학과 철학》 - 이중권

24 폴 헤이즈 외 《유럽현대사의 재문제》 - 박지향

김우택 외 《시장경제와 한국의 자본주의》 - 장상환

25 최석식 《우리의 과학기술, 어떻게 높일 것인가》 - 이광형

### 이 책 그 사람 26 《영동지방 역사기행》 펴낸 방동인 교수

《영문학 산책》 펴낸 진인숙 교수

27 《김정일과 코카콜라》 펴낸 김학준씨

《천하를 덮는 모자》 펴낸 강위석씨

### 세계의 출판 28美잡지계에 파격적인 X세대 돌풍·외

30 신간안내 / 새로 나온 책

43 출판저널 제152호-제173호 총목차

표지사진/김지옥(자료 협조:삼성출판박물관)

## 알림

광복 50주년을 맞아 이번호 《출판저널》은 특집기획으로 꾸밈습니다. 광복 이후의 반세기 세월은 그대로 출판의 역사라 할 수 있습니다. 광복 50년의 의미를 회고하는 ‘출판인 앙케트’를 비롯한 몇가지 특집기사에 이어 다음호(제175호) 역시 ‘광복 50년, 출판 50년’의 특집호로 꾸밀 예정입니다. ‘나의 출판 반세기 교육기’ (조상원·현암사 회장) ‘출판계를 이끈 작고 출판인들’ ‘사건으로 본 출판 50년’ 등의 기사가 마련됩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바랍니다.

《출판저널》 편집부